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 조사

-서울 노원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윤 영

#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 조사

-서울 노원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윤 영

# 인 준 서

김운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현재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는 국악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악기 중 단소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걸쳐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비해 단소 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단소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을 평가하고, 설문지를 통해 단소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관심도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의 단소곡을 분석하고 단소 실기 평가 채점지와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노원구의 A중학교 1학년 학생 100명에게 단소 실기 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실기 평가는 자세 및 운지, 소리, 곡 연주능력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였고 실기 평가 후 총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의 분석을 위해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기 평가 결과 자세 및 운지는 전체의 58%가 나쁨의 평가를 받아 많은 학생들이 좋지 못한 자세와 운지법으로 단소를 연주함을 알 수 있었다. 또 46%의 학생들만이 단소의 소리를 잘 낼 수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리가 전혀 나지 않거나 바람소리가 섞여 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제시된 악곡을 정확히 연주한 학생은 전체의 30%였다.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총점을 살펴보면 '잘함'의 평가의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25%로 매우 적었으며,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소 교육이 생각보다 낮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46%가 전통적인 방식의 한자 정간보를 읽을 수 있다고 답하였고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0%, 자신 있게 연주 할 수 있는 곡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32%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단소 연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소를 배우며 재미를 느낀 학생은 41%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수업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었고, 학교 외에 외부에서 단소를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40%로 이들 대부분은 학원에서 배웠다고 답하였다.

단소를 더 배우고 싶다는 학생은 전체의 45%였는데 이 때 배우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 대부분이 그 이유로 소리내기의 어려움을 꼽았다. 역시 단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도 전체의 63%의 학생이 소리내기라고 응답하여, 두 문항의 결과로 볼 때 단소 교육에서 소리내기 부분의 교육이 더욱 집중적·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단소 점수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하위 점수대를 적은 학생들이 전체의 54%나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단소 연주에 대해 매우 자신 없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소 교육은 그 시간과 내용에 비해 생각보다 적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단소의 소리내기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단소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 문제 .....	3
4.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5
1. 단소 (短簫) .....	5
2.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 .....	10
3. 선행연구의 고찰 .....	11
III.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 학습 내용 분석 .....	15
1. 교과서의 단소 악보 .....	15
2. 5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 분석 .....	17
3.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 분석 .....	20
IV. 단소 실기 능력 평가 및 설문지 조사 .....	22
1. 연구의 대상 및 검사 실시 .....	22
2. 연구 도구 .....	23
1) 단소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한 채점지 .....	23
2) 설문지 .....	27
3. 연구의 절차 .....	32

4. 평가의 시행 및 연구 분석 방법 .....	32
<b>V. 연구 결과 및 분석 .....</b>	<b>34</b>
1.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 .....	34
1) 신뢰도 .....	34
2) 평균과 표준 편차 .....	34
2. 평가 결과 및 분석 .....	36
1) 실기평가의 결과 및 분석 .....	36
2) 설문지의 결과 및 분석 .....	45
<b>VI. 결론 및 제언 .....</b>	<b>61</b>
1. 결론 .....	61
2. 제언 .....	65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국악이란 이름으로 통칭되는 한국의 전통음악은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숙 되어온 문화유산이다. 음악교육에 있어 사명의 한 가지는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기에 국악교육은 앞으로 계속 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큰 과업이며 또한 이는 민족적인 주체성 함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국악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초기 서양음악 위주였던 음악교육의 흐름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학교 음악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의 주장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전통 음악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 교육으로 발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전통 음악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단소, 가야금, 대금, 피리, 사물놀이 등의 교육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국악 비중의 확대와 함께 국악 기악에 대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점점 다양해지고 상세화 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다뤄지는 국악기 중 하나가 단소이다.

단소는 짧은 취주악기라는 뜻으로, 세로로 부는 관악기이다. 대금, 피리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에 속하며,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 가곡반주, 병주, 독주 등 많은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국악기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주하는 대중화된 악기로, 그 구조가 간단하고 연주법이 단순하며 값이 싸고 휴대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음색이 매우 아름다워 교육용 악기로서의 조건과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전통 악기에 비해 비교적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전통 음악 교육지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 실제 학교 음악 교육 현장에서도 전통음악교육을 위한 기악 학습의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음악교과서에 처음 단소가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6학년까지 교육되며, 이후 중학교 음악 교과서 9종 모두에서도 단소 학습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학교 음악교육에서 국악교육이 활성화 되고, 또한 이에 따라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단소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실제 학생들의 단소 교육효과, 즉 단소를 연주하는 실력이나 단소에 관한 지식의 습득정도를 알아보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단소곡을 조사하고 공교육에서 단소 교육이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친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단소 실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단소 실기 실력을 알아보고, 이 조사를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단소 교육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단소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소 연주 시 학생들의 자세와 운지법은 정확한가?

둘째, 연주 시 단소의 소리는 어떠한가?

셋째, 제시된 악보를 보고 정확히 연주할 수 있는가?

넷째, 단소에 대한 흥미도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이며 단소 학습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표집 대상은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과정을 마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 10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실기 평가 곡목은 현재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 단소 제재곡인 참새노래, 개구리소리, 도라지 타령의 세 곡만을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단소 (短簫)

단소는 짧은 취악기란 뜻이며 대금, 피리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이다. 단소는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 가곡 반주, 병주, 독주 등의 많은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소는 길이 40여cm에 안지름이 1.2~1.3cm정도 이니 이름 그대로 작은 악기이다. 몸체에 뚫린 지공(指孔), 즉 손가락으로 막고 여는 구멍이 뒤에 1공, 앞에 4공이 있어 모두 5공이지만 보통은 제5공을 쓰지 않으므로 네 구멍으로 가락을 옮긴다.<sup>1)</sup>

4개의 지공으로 연주하는 지법은 간단하나 소리는 매우 맑고 아름답다. 또한 정확한 연주법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연주 할 수 있으며 악기가 크지 않아 휴대가 용이하고, 소리도 크지 않아서 점차 널리 보급되어 대중화되고 있는 악기이다.

#### 1) 단소의 역사

단소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악학궤범』은 물론 그 이후의 문헌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단소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전 중국 황제(黃帝) 현원이 기백(岐伯)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여 무덕(武德)을 기르고 군사의 사기를 돋우며, 임금의 공덕을 선양케 하고, 왕사(王師)가 크게 이겼을 때 개선가(凱旋歌)로 쓰였다는 설과 우리나라에서는

---

1) 서한범,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1996

조선조 순조(1802~1834)때 청나라로부터 들여와 궁중음악에 사용하였다고 『조선악기편(朝鮮樂器篇)』과 『이왕가악기첩(李王家樂器帖)』에 전한다.<sup>2)</sup> 또한 한대(漢代)의 『단소요가』에서 보이는 관악기가 단소라는 설 등이 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손태룡은 “단소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서민층에서 횡적인 신라 삼죽(三竹)중의 첫대, 소금 등과 함께 통애라는 이름으로 전해오다가, 조선조 후기에야 궁중 악사들에 의해 채용되어 보다 짧아진 상태(지공수가 달라졌다)로 변모 하였다”고 했고 김기수는 “단소는 시나위 통애와 함께 신라 삼죽(三竹)이라는 가로저보다도 오히려 훨씬 이전부터 민속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애용되던 민간 대중 악기로 문헌에 기록되지 못하다가 이조 후반기에 들어서야 정악과 궁중음악에 채택 연주되어 비로소 빛을 보아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또한 송혜진(2000)은 “악기의 구조나 지법(指法)으로 볼 때 조선 중기 이후에 통소의 변형으로 생겨난 것으로 추측 된다”고 하였으며 서한범은 “이 악기의 이름은 『악학궤범』은 물론 그 이후의 문헌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 생긴 듯하며, 우리 음률에 맞도록 통소의 제도를 고쳐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 된다”고 하였다.

조선조 현종 때 단소의 명인 함제홍은 함소(咸簫)란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신기(神技)에 가까웠다고 하며, 명인 최수성은 취미로 단소를 만지다가 직업으로 바꾼 사람이었다고 한다.

## 2) 단소의 재료 및 제작

단소는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 진다. 단소의 재료로는 3~4년 정도 묵은 황죽(黃竹)이나 검은 오죽(烏竹) 또는 청죽(靑竹)등을 많이 쓰는데, 대는 등

---

2) 김기수, “단소율보” 은하출판사 1981

근 솟대보다 납작한 타원형의 암대가 음색이 좋고 연주하기가 편하다.

단소를 제작하려면 먼저 불을 피워 대의 진을 빼고, 속의 막힌 마디를 뚫은 후 내경을 훑고 다듬는다. 그리고 V자 모양의 취구(吹口)를 상단 안쪽으로 파고 소리를 내 보면서 전폐음(全廢音)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은 지름 0.5cm 정도의 지공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정확한 음정을 얻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 이유는 자연생인 대나무의 안지름이 각각 다르고, 대의 질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작 과정이 까다롭고, 그 밖에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 등을 고려해 교육용으로는 합성수지재를 이용한 개량형 단소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개량형 단소는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음빛깔이 대나무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음정이 균일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소교육의 중요한 문제인 학생들의 음정의 통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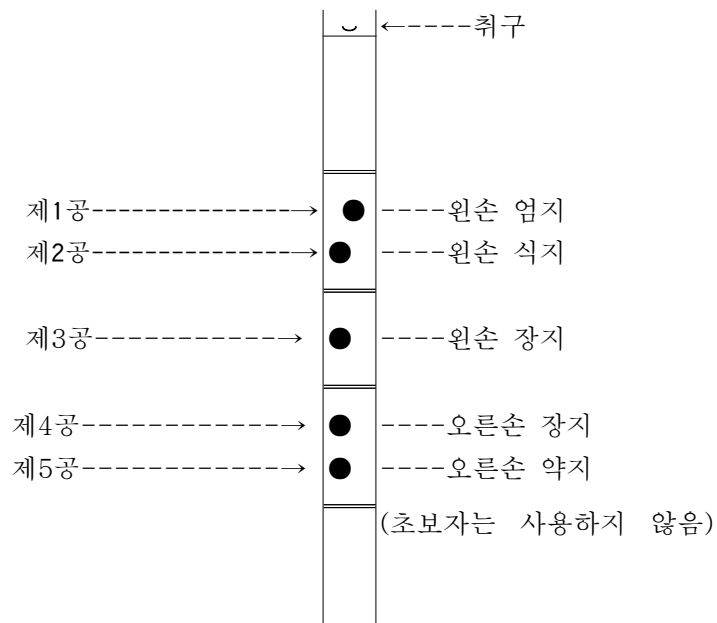
### 3) 단소의 연주법

#### (1) 연주 자세와 운지법

단소를 연주 할 때는 바르게 앉아서 허리를 편 후 머리를 15도 정도 숙이고 악기를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워 잡는다. 양 팔은 허리에서 10cm정도 가깝게 떨어지게 해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시선은 약 15도 정도 아래를 보도록 한다. 단소를 잡을 때는 왼손 엄지로 단소의 뒷구멍을 막고, 왼손 식지로 앞의 첫째 지공을 막고, 왼손 장지로 앞의 두 번째 지공을 막아준다. 그 다음 오른손 장지로 셋째지공을 막고, 맨 밑에 있는 구멍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협(狹)음이 나올 때에만 오른손 약지로 막아준다. 나머지 손가락 들은 악기 위에 가지런히 얹어 두도록 한다.

<그림 II-1> 단소의 운지법



<표 II-1> 단소의 운지법

한글 표기	중	임	무	• 황	• 태	• 중	• 임	• 무	•• 황	•• 태	•• 중
1공	●	●	●	●	○	●	●	●	●	●	●
2공	●	●	●	○	○	●	●	●	○	○	●
3공	●	●	○	○	○	●	●	○	○	●	○
4공	●	○	○	○	○	●	○	○	○	○	●
5공	○	○	○	○	○	○	○	○	○	○	○
한자 표기	仲	林	無	潢	汰	洶	淋	漚	潢	汰	漉

※ ○ : 열기, ● : 닫기

(2) 단소의 소리내기

소리를 낼 때는 입술의 모양이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일치시킨 뒤 옆으로 미소를 짓듯이 입술을 펴준다. 이때 취구가 아랫입술 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며 아랫입술이 취구의 나머지 부분을 막아주게 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서 조금 밑으로 띄워서 대고 입김이 나오는 방향(약 45도)로 하여 “프-”하고 가볍게 김을 불어 넣는다. 소리내기 가장 쉬운 음은 汰(태)음이기 때문에 汰(태)음을 중심으로 하여 한음씩 낮은음을 낼 때는 입김의 세기를 점점 약하게 하고, 음이 올라갈 때는 입김의 세기를 조금씩 세게 불어준다.<sup>3)</sup> 소리내기를 반복하여 연습할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연습해 맑은 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3) 김진성. '단소연습곡집'. 이화문화출판사 2000

## 2.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 중 음악과 평가에 대한 제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내용·과정에 부합되도록 하며, 전 영역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목적과 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방법과 도구를 선택한다.

둘째, 이해 영역은 실음 위로 활동 영역과 관련지어 평가한다. 초등학교 기악에서의 활동 영역의 평가는 자세, 주법, 음정, 음악적 표현력, 태도 등을 평가하며, 음악에 대한 태도는 학교 내외에서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평가한다.

셋째, 실기평가, 관찰, 학생의 자기평가, 학생간의 상호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활용 할 것(교육부 1999)을 제시하고 있다.

< 표Ⅱ-2 > 학년별 활동 영역에서의 기악 활동

5학년 기악활동영역	6학년 기악활동영역
<p>◆다양한 악곡을 연주한다.</p> <p>①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p> <p>②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p> <p>③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p> <p>④ 간단한 곡을 외어 연주한다.</p> <p>⑤ 곡에 어울리는 화음을 가락 악기로 반주한다.</p> <p>⑥ 지휘에 맞추어 기악 합주를 한다.</p> <p>⑦ 연주를 듣고 평한다.</p>	<p>◆다양한 악곡을 연주한다.</p> <p>①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p> <p>②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p> <p>③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p> <p>④ 간단한 곡을 외어 연주한다.</p> <p>⑤ 가락 악기, 리듬 악기, 관악기로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한다.</p> <p>⑥ 지휘에 맞추어 중주한다.</p> <p>⑦ 연주를 듣고 평한다.</p>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소 실기 능력 평가 시에 다양한 악곡을 제시하고, 연주 자세, 주법, 음악적 표현력 등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단소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등을 조사하였다.

### 3. 선행연구의 고찰

선행 연구 분석은 단소 실기 실력 평가에 관한 논문을 참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단소 실기 평가 도구 개발이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있는 석사학위 논문 위주로 분석하였다.

김경태의 “단소실기 수행평가 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에서

는 현재 연구가 미미한 국악영역의 수행평가를 돕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단소 연주를 위한 기본 영역인 음정, 박자, 암기, 표현, 자세 등의 항목이 들어간 학습 목표와 평가를 세워 그에 따른 평가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단소 실기에 알맞은 실기평가를 통한 평가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단소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수행 평가 계획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여 전체적 수행평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계획에 따라 쉽고 정확한 평가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지필평가 항목에서 호흡법에 대한 지문(단소를 연주 할 때는 “휘-”하고 불어야 한다)이 다소 주관적인 경향이 있었고, 몇 몇의 문제에서 단순히 문제에 대해 안다·모른다고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지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에 대한 인지여부만을 가려, 연구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피드백 제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겠다.

서인희의 “音樂受業에 활용할 포트폴리오 開發 : 고등학교 1학년 단소 실기 평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에서는 단소의 실기, 창작, 기악, 감상의 네 개의 분야별로 수업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실제 수업에 활용해보으로써, 수업 포트폴리오와 과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내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단소 실기 평가 시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창작 및 감상 영역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그동안 단소의 연주에만 치중되어 있었던 평가부분을 실기, 창작, 기악, 감상의 4개 분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로 수업 시수를 배당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며 또한 제시된 수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 했으면 하는 점과 학생

스스로 구성해 보는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통해 창의적인 음악수업을 제시하는 점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안현숙의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의 단소 교재곡 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에서는 5,6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단소 제재곡의 학습 목표 및 활동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재곡과 제시된 단소보가 일치 되지 않는 점, 호흡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익힌 음을 연습할 수 있는 쉬운 민요곡의 제시가 미흡한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 문제점들의 수정을 위하여 제시된 단소 제재곡의 학습 목표 및 활동을 재구성하였으며 각 단소 제재곡별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보았다. 또한 체계적인 단소 지도를 위해 3, 4, 5, 6 학년에서 단소를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단소 지도 과정을 기초부터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학생과 교사가 쉽고 다양한 곡을 단소로 연주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 4, 5, 6 학년에서 제시되는 민요곡들을 단소 정간보로 옮겨 수록하였다. 이 논문에서 현재 제시된 단소 제재곡의 학습 목표와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새 학습 목표와 활동을 구성해 새로운 학습 지도안을 작성한 점은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정채린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음악 교과서 단소 학습곡 분석 및 지도방안 : 협동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에서는 5,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 학습곡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학습을 적용한 단소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5, 6학년의 음악 교과서 단소 학습곡을 분석한 결과, 기초적인 연습곡만을 수록하고 율명을 한자가 아닌 한글로만 표시한 점, 정간보의 악보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점, 단소 지도에 있어서 배정된 시

간이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인이 아닌 모둠 간에 협동하여 단소 연주 활동을 하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고, 경쟁적 학습 구조에서 벗어나 수업에 대한 적극성·자신감·협동심·책임감 등을 길러주어 협동 속에서 전통음악에 흥미를 갖고 연주 기능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관계에도 좋은 모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자의 “수행평가 적용을 통한 음악과 교육평가 개선 방안연구-창의력 신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음악과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 적용하여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수행평가 문항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창의력을 신장함은 물론,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는 평가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평가기준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연간지도계획과 평가계획을 세워 실제 학급을 대상으로 1년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구체적인 수행평가 문항개발은 물론 다양한 평가를 적용하였다는 점과 음악과 수행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앞서 이전에 연구된 여러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고 그 논문이 갖는 의의나 아쉬운 점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논문들은 대개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단소곡에 대한 분석이나 그 분석에 따른 제언, 혹은 단소 실기 평가의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실제 학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단소 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단소 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Ⅲ.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 학습 내용 분석

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의 비중은 6차보다 증가하였고, 내용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단소 학습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단소 율명을 새로운 방식의 정간보로 표기한 점인데, 이는 기존의 게이름으로 나와 있던 단소의 악보를 전통적인 방식의 율명과 악보를 사용해 연주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단소를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단소 실기 능력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단소 학습활동이 제시된 단원을 알아보고,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목표, 학습활동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학생들의 단소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교과서의 단소 악보

본래 단소는 세로로 된 한자 정간보를 사용하나, 5,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세로 정간보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보기 쉽도록 가로 정간보의 형식에 한글로 율명을 적어놓았다. 이때 낮은 음 (삼수변이 붙지 않는 음, 순취 : 중 (仲), 임 (林), 무 (無))에는 글자 위에 점을 찍지 않고 표기하였고, 높은 음 (삼수변이 붙는 음, 평취 : 황 (潢), 태 (汰), 중 (沚), 임 (淋))에는

글자위에 점을 찍어 높은 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보를 읽을 때에는 맨 윗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책을 읽는 법과 같게 하여 학생들이 쉽게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율명위에 점이 붙지 않는 음 (낮은 음 : 삼수변이 붙지 않는 율명)	한글 율명위에 점이 붙는 음 (높은 음 : 삼수변이 붙는 율명)
중 (仲), 임 (林), 무 (無)	황 (潢), 태 (汰), 중 (洵), 임 (淋)

<그림Ⅲ-1>

교과서에 제시된 가로 정간보 (6학년 도라지타령)

**도라지타령**  
- 단소 연주 -

🎵 '도라지타령' 을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

태	태	태	태	- - 황	무	
도	라	지	도	- 라	지	
중		임 - 중	태	- - 황	무	
백	-	도	- 라	- -	지	
황 - 태	태	태	황 - 태	황 - 무	임 중 -	
심 -	심	-	산	- 천	- 에 -	
임	무	- - 임	중		△	
백	도	- 라	지	-		

## 2. 5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 분석

5학년에서는 4개의 단원에서 단소 학습활동이 제시되며 가로 정간보로 된 네 곡의 단소곡을 제시하였다. 5학년의 단소 학습 지도는 개방음 ‘태(汰)’로부터 시작해서 ‘태(汰), 황(潢), 무(無), 임(林), 중(仲)’의 5음을 익힌 후 연습곡 3곡을 연주하도록 한다. 이 후 최종적으로 국악 동요곡인 ‘참새 노래’를 연주하도록 되어있다.

1) 단원명 : 고사리꺾자 (5학년 음악 교과서 9쪽)

(1) 학습목표 : 단소의 주법과 운지를 알고 소리 낼 수 있다.<sup>4)</sup>

(2) 학습활동 : 단소의 기본 주법을 익히고 태(汰)소리를 내고 연습곡을 불러본다.

이 단원에서는 단소의 운지법(각 손가락과 지공의 위치, 태(汰)의 운지), 바른 자세, 소리 내는 법을 익히고 개방음인 태(汰)음만을 사용한 쉽고 기본적인 간단한 연습곡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학습내용	바른 자세, 소리내기 각 손가락과 지공의 위치 바로알기 태(汰)의 운지
연주곡	태(汰)음을 사용한 연습곡

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학년. 교육부 (2002). .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 단원명 : 봄이가고 여름오면 (5학년 음악 교과서 23쪽)

- (1) 학습목표 : 태(汰), 황(潢), 무(無) 소리의 운지를 알고 소리를 낼 수 있다.
- (2) 학습활동 : 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익혀 태(汰), 황(潢), 무(無)를 소리내보고, 이 3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연습곡을 연주해 본다.

이 단원에서는 태(汰)음에 이어 황(潢), 무(無)의 운지를 배워보고 이 세 가지 음으로 된 연습곡을 연주하였다. 이 연습곡 또한 앞의 단소곡과 마찬가지로 기본음 연습을 위하여 쉬운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내용	潢(황), 무(무)음의 운지
연주곡	汰(태),潢(황), 무(무)음을 사용한 연습곡

3) 단원명 : 아침해 (5학년 음악 교과서 31쪽)

- (1) 학습목표 : 제재곡 일부를 단소 연주 할 수 있다.
- (2) 학습활동 : 단소의 운지를 연습하고 연습곡과 제재곡을 연주한다.

이 단원에서는 태(汰), 황(潢), 무(無)의 운지법에 이어 임(林), 중(仲)의 운지법을 배우고 5음 (태(汰), 황(潢), 무(無), 임(林),중(仲))을 모두 사용한 연습곡을 연주하였다. 5음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앞의 두 단소곡 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 있어서는 적당한 수준의 어렵지 않은 곡이 되겠다.

<b>학습내용</b>	林(임), 仲(중)음의 운지
<b>연주곡</b>	5음(태(汰), (潢), 무(無), 임(林), 중(仲))을 사용한 연습곡

4) 단원명 : 넬리리아 (5학년 음악 교과서 43쪽)

- (1) 학습목표 : 단소로 국악동요를 연주 할 수 있다.
- (2) 학습활동 : 단소의 낮은 음과 높은 음을 익혀 간단한 국악 동요를 단소로 연주해 본다.

이 단원에서는 낮은 음으로 된 5음(태(汰), 황(潢), 무(無), 임(林), 중(仲))에 이어서 높은 음의 주법을 익혀 낮은 음과 높은 음이 모두 사용된 악곡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 곡은 처음으로 제시하는 연습곡이 아닌 ‘연주곡’ (기존 노래를 악보로 구성한 것)이며, 높은 임(淋)과 태(汰)음, 혹은 임(淋), 중(沚), 태(汰)가 연이어 나오는 부분이 이 곡에서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b>학습내용</b>	낮은 음과 높은 음의 연습
<b>연주곡</b>	낮은 음과 높은 음((태(汰), 무(無), 낮은 임(林)과 높은 임(淋), 낮은 중(仲)과 높은 중(沚))을 사용한 국악곡 참새노래

### 3.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 분석

6학년에서의 단소 학습활동은 2개의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단소곡은 2곡 뿐이지만 단소 지도에 배정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 있으며 그 수준 또한 5학년 단소곡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다. 먼저 ‘개구리 소리’에서 같은 음을 반복하여 연주하는 주법을 익혀 단소의 기본 음 연습과 제재곡 연주하기(개구리소리) 활동이 제시 되고난 뒤에 민요곡인 ‘도라지 타령’을 단소로 연주하게 되어 있다.

1) 단원명 : 개구리 소리 (6학년 음악 교과서 19쪽)

(1) 학습목표 : ① 같은 음을 반복하는 주법을 익혀 단소로 연주할 수 있다.<sup>5)</sup>

② ‘개구리 소리’를 단소로 연주할 수 있다.

(2) 학습활동 : 같은 음 중복 연주 방법을 익히고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개구리 소리’를 단소로 연주해 본다.

이 단원에서는 중복된 음의 연주방법을 익혀 제시된 악곡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쉼표가 아닌 ‘숨표’(△)를 표기하여 1박을 쉬는표기를 포함하였으며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들어 있는 박자 꼴이 있는 악곡을 연주하였다. 개구리소리는 이전의 악곡인 참새노래보다 긴 악곡으로, 참새노래에서는 주로 높은 음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 곡에서는 낮은 음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소를 연주 할 때 적절한 입김 조절 능력이 필요한 곡이라고 하겠다.

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6학년. 교육부 (2002).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b>학습내용</b>	숨표 익히기, 한 정간을 2등분하는 박자꼴 익히기
<b>연주곡</b>	높은 음이 포함된 국악곡 (단원과 동일한 곡 제시)

2) 단원명 : 거문도 뱃노래

- (1) 학습목표 : 단소로 ‘도라지 타령’을 연주할 수 있다.
- (2) 학습활동 : 도라지타령의 율명을 읽고 전곡을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단소로 연주해본다.

이 단원에서는 낮은 음과 높은 음을 자유롭게 소리 내며 한 정간 안에 세 음이 있는 박자 꼴이 포함된 악곡을 연주하였다. 이제까지 제시된 악곡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한 정간 안에 세음이 들어가는 부분의 특징을 살려 붙어야 민요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 낼 수 있으며 높은 음과 낮은 음이 고루 나오고 있고, 악곡의 길이 때문에 연주자의 호흡 조절이 필요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b>학습내용</b>	한 정간을 3등분하는 박자꼴 익히기
<b>연주곡</b>	높은 음이 포함된 국악곡 (민요)

## IV. 단소 실기 실력 평가 및 설문지 조사

단소 실기 실력 평가는 실기평가와 함께 간단한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실기 평가는 분석한 교과서의 내용과 7차 교육과정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실기 채점표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 1점에서 최고 10점의 점수를 채점하였다.

이 때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외에 학부에서 국악을 전공한 2명의 평가자가 함께 채점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실기 평가 영상을 녹화하였다. 설문지는 실기 평가가 종료된 후 약 5~10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 작성하게 한 뒤 제출하도록 하였다.

### 1. 연구의 대상 및 검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단소 실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중학교에 입학한 후 2008년 4월 현재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음악 수업시간에 단소 수업이 없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가의 대상이 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A중학교였으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0명과 여학생 40명, 총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V-1> 평가의 대상

구 분	내 용
대상 지역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대상 학교	A중학교
대상 인원	중학교 1학년 학생 100명 (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

## 2. 연구 도구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단소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 작성

본 연구를 위한 단소 실기 평가를 위하여 실기 평가 기준을 작성하였다. 이때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의 단소곡을 분석하고 이들 곡 중에서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 3곡<sup>6)</sup>을 선정한 뒤, 7차 교육과정의 평가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평가 항목은 단소 연주 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항목인 자세 및 운지법, 소리, 곡 연주 능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른 실기 평가 채점지와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6) <부록 1> 참새노래 악보, <부록 2> 개구리소리 악보, <부록 3> 도라지 타령 악보 참고

<표 IV-2> 단소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한 채점지의 구성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세 및 운지법	바른 자세와 운지법으로 연주하는가?	1점	나쁨
		2점	좋음
소리	연주 시 단소의 소리는 어떠한가?	0점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
		1점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2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
		3점	소리가 잘 나는 편이다
		4점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낸다
곡 연주능력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표현력 있게 연주하는가?	0점	연주가 불가능 하다
		1점	연주는 가능하나 악보와 거의 맞지 않는다
		2점	부분적으로 악보에 맞게 연주 한다
		3점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연주한다
		4점	정확한 박자로 연주하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
총점		10점	

(1) 자세 및 운지법 항목의 평가 기준 : 바른 자세와 운지법으로 연주하는가?  
 이 항목에서는 전체 10점의 점수 중에 20%에 해당하는 2점을 배점 하였다.  
 이 항목은 단소 연주를 위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할 요소로서, 자세가 나쁘

거나 운지법이 틀린 학생을 ‘나쁨’인 1점, 두 가지 모두가 좋은 학생을 ‘ 좋음’인 2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단소의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악기의 끝은 45도 정도 위를 향하며 양 팔은 가볍게 드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하겠다.

(2) 소리 항목의 평가 기준 : 연주 시 단소의 소리는 어떠한가?

이 항목은 전체 10점의 점수 중에 40%인 4점을 배점하였다. 단소에서 소리 내기는 연주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연주 능력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소는 연주자에 능력에 따라 그 음색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 항목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4점을 배점하였다. 이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를 0점,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즉 바람소리가 심하게 나는 경우를 1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를 2점, ‘소리가 잘 나는 편이다’를 3점,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낸다’를 4점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3) 곡 연주능력 항목의 평가기준 :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표현력 있게 연주하는가?

이 항목은 소리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체 10점의 점수 중 40%인 4점을 배점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학생의 전체적인 단소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생이 제시된 악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 박자에 맞게 연주 할 수 있는지,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때, ‘연주가 불가능하다’ 즉, 연주를 포기하거나 연주가 불가능한 학생들은 0 점, ‘연주는 가능하나 악보와 거의 맞지 않는다’의 경우 1점, ‘부분적으로 악보에 맞게 연주 한다’는 2점,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연주 한다’는 3점, ‘정확한 박자로 연주하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 한다’는 4점을 주도록 하였다.

<표IV-3> 실기 평가 능력 채점표

<b>&lt;실기평가 채점표&gt;</b>	
연주곡명 : 참새노래, 개구리소리 , 도라지타령 (세 가지 곡 중 택일)	
평가항목	평가 점수 (최저점 1점)
자세 및 운지법	바른 자세와 운지법으로 연주하는가?  1 (나쁨)    2 (좋음)
소리	연주 시 단소의 소리는 어떠한가?  0.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 1.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2.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 3. 소리가 잘 나는 편이다 4.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낸다.
곡 연주 능력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표현력 있게 연주하는가?  0. 연주가 불가능하다. 1. 연주는 가능하나 악보와 거의 맞지 않는다. 2. 부분적으로 악보에 맞게 연주한다. 3.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연주한다. 4. 정확한 박자로 연주하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
<b>합 계</b>	<b>총 10점 중            (            점)</b>

## 2) 설문지

실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단소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IV-4> 설문지의 구성

문항	질문의 의도	답변의 예시
전통적인 방식의 정간보를 읽을 수 있는가?	세로 형태로 된 한자 단소보 를 읽을 수 있는지의 여부	있다
		없다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가?	교과서 제재곡 외 연주해 본 곡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연주 할 수 있는 곡이 있는가?	단소 연주에 대한 자신감 파악	있다
		없다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는가?	흥미도 파악	매우 재미없었다
		재미 없었다
		그저 그렇다
		조금 재미있었다
		매우 재미있었다
단소를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배워 본 적이 있는가?	외부 교육 수강 여부	있다
		없다
단소를 배운적이 있다면 어디서 배웠는가?	외부 교육 기관 파악	자유 기술
앞으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단소에 대한 관심도 (학습 욕구) 파악	있다
		없다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이 있는가?	학생들의 성향 파악	자유 기술
배우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소 학습 욕구의 부재 이유 파악	연주방법이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소리가 잘 안나서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단소 학습 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파악	기타 (자유 기술)
		소리내기
		운지법(손가락 잡는법)
		호흡
나의 단소 실력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단소 연주에 대한 자신감 파악	악보(정간보)읽기
		기타 (자유 기술)
나의 단소 실력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단소 연주에 대한 자신감 파악	자유 기술 (1점~5점 만점)
총 문항 수	11	

(1) 전통적인 방식의 정간보 (세로 형태, 한자 표기)를 읽을 수 있는가?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소의 원래 악보인 전통적인 방식의 정간보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가?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소곡 이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문항을 작성 하였다.

(3) 자신 있게 연주 할 수 있는 곡이 있는가?

학생들이 단소에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 있게 연주 할 수 있는 곡의 여부를 물었다.

(4)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는가?

학생들의 단소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 파악을 위해 본 문항을 작성 하였다. 예시로는 매우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 그저 그렇다, 조금 재미있었다, 매우 재미있었다를 제시하였다.

(5) 단소를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따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서 배웠는가?

몇 명의 학생들이 단소를 따로 배우고 있으며, 주로 어디서 단소를 배웠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6) 앞으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연주해보고 싶은 곡은 있는가? 또, 배우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소에 대한 학습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지를 물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곡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관 질문을 하였으며, 배우고 싶지 않다 ; 즉 단소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연계 질문을 하였다.

(7)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단소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것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항을 넣었다. 예시로는 소리내기, 호흡, 악보읽기, 운지법, 기타를 제시하였다.

(8) 스스로 나의 단소 실력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겠는가?  
이 항목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단소 실력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단소 학습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본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IV-5>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5학기에 재학인 김윤영 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소 실기 실력 평가>에 관한 논문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순수한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자세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1. 가로 정간보가 아닌 한자로 표기된 세로 정간보를 읽을 수 있습니까?  
( 있다, 없다 )
- 문2.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
- 문3. 자신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

문4.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습니까?

- ① 매우 재미없었다. ② 재미없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조금 재미있었다. ⑤ 매우 재미있었다.

문5-1. 단소를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따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5-2번으로, '없다' 6-1번으로. ( 있다, 없다 )

5-2. 배워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학원, 개인레슨, 특기적성 등)  
( )

문6-1. 앞으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 '있다' 6-2번으로, '없다' 6-3번으로. ( 있다, 없다 )

6-2. 단소를 더 배우고 싶다면 혹시 배워보고 싶은 곡이나 연주해보고 싶은 곡이 있습니까? 있다면 곡목을 적어주세요. (없다면 빈칸으로 두세요.)  
( )

6-3.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주 방법이 어려워서 ② 재미가 없어서 ③ 소리가 잘 안나서
- ④ 기타 :

문7.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① 소리내기 ② 운지법 (손가락 잡는 법)
- ③ 호흡 ④ 악보(정간보) 읽기 ⑤ 기타 :

문8. 마지막질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단소 실력을 평가한다면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점수 중에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나요?

( ) 점

###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7차 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내용과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소 실기 능력 평가 기준(채점지)을 작성하였다. 또한 단소에 관한 흥미도와 관심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둘째,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기 평가 및 설문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는 3일에 걸쳐 학생 1명 대 평가자 3명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진행한 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 때 실기 평가의 채점 결과 분석 시에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해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알아보았다.

### 4. 평가의 시행 및 연구 분석 방법

단소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자 외에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국악 전공자 2명과 함께 채점을 진행하였으며 평가 시에는 평가 과정을 영상 자료로 녹화하였다. 시행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의 작성과 그래픽을 위해 Excel을 사용하였다.

둘째, 실기 평가 채점지와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실기 평가 채점지와 설문지의 내용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넷째, 실기 평가 채점자 3명간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얻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실기 평가 채점 결과 제시에 사용되는 평균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 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

#### 1) 신뢰도

신뢰도는 측정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그 결과가 일치되는 정도를 채점자간의 신뢰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단소 실기 평가는 3명의 채점자가 채점하였으며, 이 들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알아보았다. 검사의 신뢰도는 1에 가까울 수 록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SPSS를 이용하여 측정자간 채점 점수에 관한 신뢰도를 도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진행된 단소 실기 평가 채점자 3명간의 전체 신뢰도 결과는 .951이라는 신뢰도를 보였다. 보통 사회과학에서 0.8이상이면 매우 신뢰할 만 하다고 결론을 내리므로, 본 실기 평가 채점자 간의 신뢰도는 매우 높으며 따라서 세 명의 채점자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채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평균과 표준 편차

세 가지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인 자세 및 운지법 항목의 평균점수는 2점 만점에 전체 평균 1.43점이었고 채점자간 표준 편차는 채점자 A의 경우 0.49점, 채점자 B는 0.50점, 채점자 C는 0.49점이었으며 표준편차의 평균은 0.49점이었다. 소리 항목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46점이었는데 채점자간 표준 편차는

채점자 A의 경우 1.55점, 채점자 B는 1.56점, 채점자 C는 1.42점이었으며 표준편차의 평균은 1.51점이었다. 곡 연주 능력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1.53점이었고 채점자간 표준 편차는 채점자 A의 경우 1.37점, 채점자 B는 1.22점, 채점자 C는 1.44점이었으며 표준편차의 평균은 1.34점이었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총점은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91점이었으며 표준 편차는 채점자 A의 경우 3.09점, 채점자 B는 2.87점, 채점자 C는 3.00점으로 표준편차의 평균은 2.99점이었다.

<표 V-1> 단소 실기 능력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점수	채점자 A의 표준편차	채점자 B의 표준편차	채점자 C의 표준편차	채점자간 표준편차평균
자세 및 운지법 (2점 만점)	1.43	0.49	0.50	0.49	0.49
소리 (4점 만점)	1.46	1.55	1.56	1.42	1.51
곡 연주능력 (4점 만점)	1.53	1.37	1.22	1.44	1.34
총점	4.91	3.09	2.87	3.00	2.99

## 2. 평가 결과 및 분석

실기 능력 평가 결과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결과 분석 시 세 명의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에서 .33의 점수를 받은 경우는 하위 점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자세 및 운지법 항목에서 1.33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 이러한 점수는 평가자 세 명중 두 사람은 1점을 주고, 다른 한 사람만이 2점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수이다. 따라서 결과 분석 시 이 학생은 1점을 받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66의 점수를 받은 경우는 상위의 점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소리 항목에서 2.66의 점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평가자 세 명 중 두 명이 3점을 주고 다른 한 명만이 2점을 주어 나타나는 점수이기 때문에 결과 분석 시 3점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 1) 실기 능력 평가의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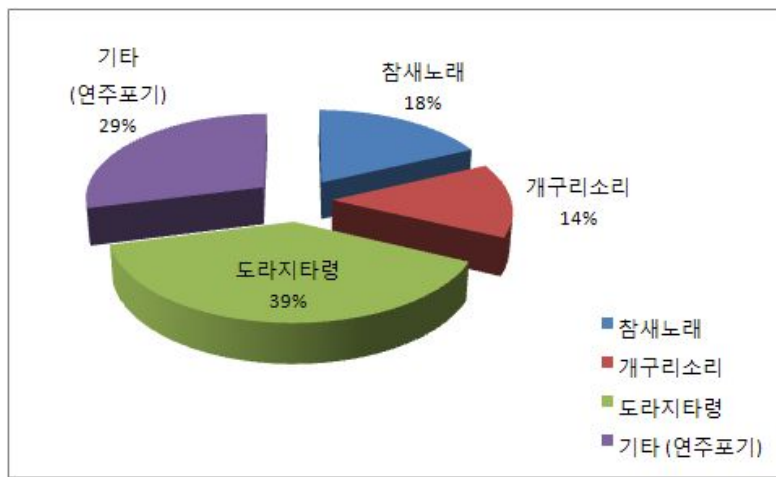
#### (1) 학생이 선택한 실기 평가 연주곡목

제시된 3곡 (참새노래, 개구리소리, 도라지타령) 중에서 평가 시 학생들이 선택한 연주곡목은 참새노래를 연주한 학생이 100명 중 18명(18%), 개구리소리를 연주한 학생이 14명(14%), 도라지타령을 연주한 학생이 39명(39%), 기타 (연주불가능 및 연주 포기자) 29명(29%)으로 도라지타령을 가장 많이 연주하였으며 개구리소리를 가장 적은 인원이 연주하였다. 이는 세 가지 곡 중 도라지 타령이 악보가 짧은 편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한 익숙한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 실기 평가 연주곡

구분	참새노래	개구리소리	도라지타령	기타 (연주포기)	합계
성별	18	14	39	29	100
백분율	18%	14%	39%	29%	100%



(2) 자세 및 운지 항목의 평가 결과

자세 및 운지 항목에서는 총 10점 중 2점을 배점하였는데, 운지법이나 자세 중 어느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 점수를 1점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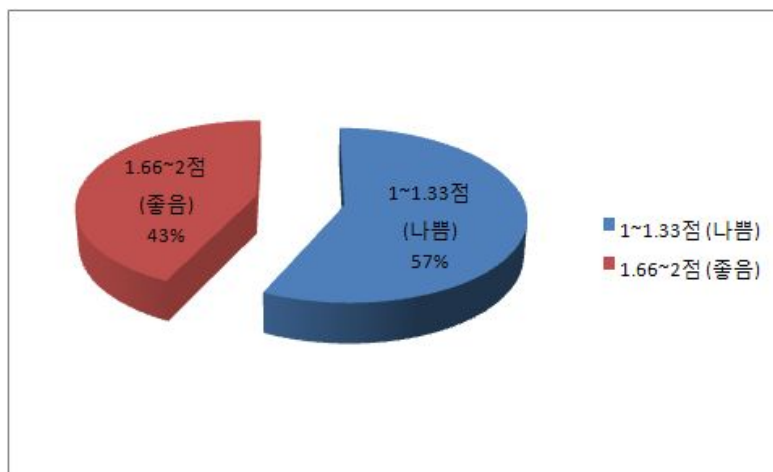
평가 결과 이 항목의 전체 평균은 1.45점으로, 나쁨인 1~1.33점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전체의 57%나 되었으며 좋음인 1.66~2점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43%로, 나쁨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나쁨’을 받은 학생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이 운지법을 틀려 이와 같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오른손 중지로 막아야 할 제 4공을 식지로 막은 경우였고 드문 경우로 왼손 중지로 막아야 할 제 3공을 왼손 약지로 막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초등학교에서 2개 학년에 걸친 단계적인 단소 학습에도 불구하고, 단소 연주의 기본항목 중에 하나인 운지법을 틀린 학생이 바른 운지법으로 연주한 학생보다 더 많다는 것은 단소의 정확한 운지법을 모르고 연주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V-3> 자세 및 운지 (2점 만점 : 전체평균 1.43점)

점수대	명	백분율(%)
1~1.33 (나쁨)	57	57%
1.66~2 (좋음)	43	43%
합계	100	100%



### (3) 소리 항목의 평가 결과

소리 항목에서는 총 10점 중 4점을 배정하였는데 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을 정하여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를 0점,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를 1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를 2점, ‘소리가 잘 나는 편이다’를 3점,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낸다’를 4점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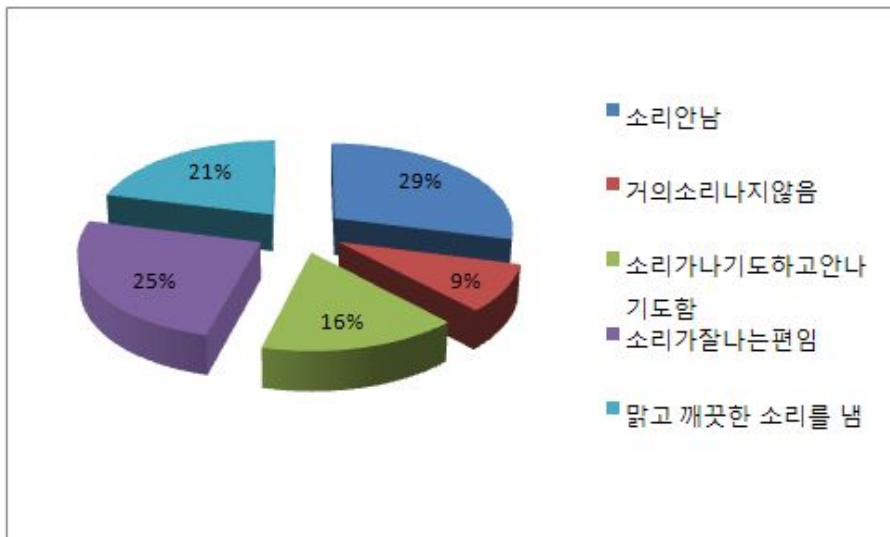
채점 결과에 따르면 소리가 잘 나는 학생(2.66점 이상)은 전체의 46%였으며 그에 비해 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거나 잘 나지 않는 학생들(2.33점 이하)은 전체의 54%로, 아직까지도 단소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학생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소리 항목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4점 만점 중 1.46점으로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 0점을 받은 학생들이 전체의 20% (2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전체 평균이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평가 대상이 된 학생들 모두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단소 학습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되어지는 단소 학습 능력 중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소리내기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것은 현재의 단소 교육에서 초기 교육 시 소리내기 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소리 항목 점수의 평균을 내고, 이에 따른 점수대의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4> 소리 항목의 평가 점수 (4점 만점 : 전체 평균 1.46점)

점수대	명	백분율(%)
0~0.33 (소리 안남)	29	29%
0.66~1.33 (거의 소리 나지 않음)	9	9%
1.66~2.33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함)	16	16%
2.66~3.33 (소리가 잘 나는 편임)	25	25%
3.66~4 (맑고 깨끗한 소리를 냄)	21	21%
합계	100	100%



#### (4) 곡 연주 능력 항목의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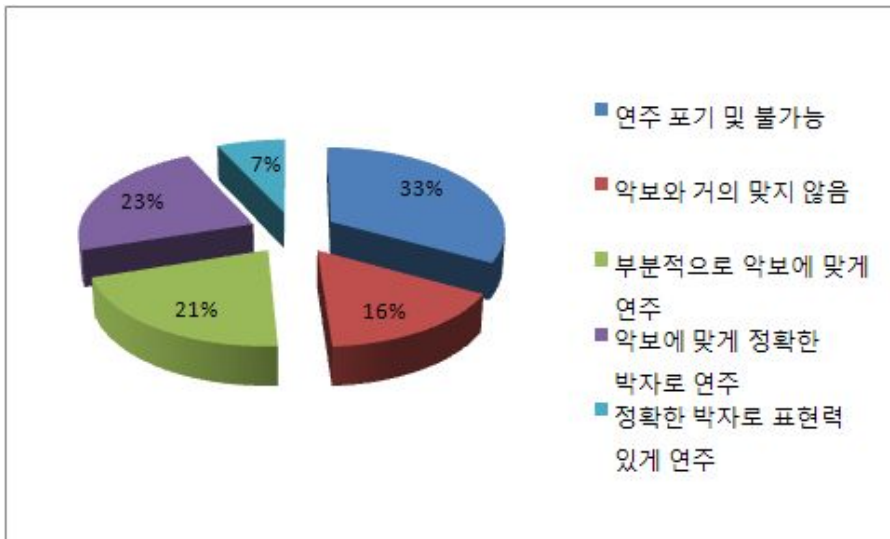
곡 연주 능력의 평가에서는 총 10점 중 4점을 배정하였으며 연주가 불가능하거나 연주를 포기하는 학생을 0점으로 하여 최고 4점까지의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0점, ‘연주는 가능하나 악보와 거의 맞지 않는다’의 경우 1점, ‘부분적으로 악보에 맞게 연주 한다’는 2점,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연주 한다’는 3점, ‘정확한 박자로 연주하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 한다’는 4점을 주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1.5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연주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연주 포기자 혹은 연주 불가능인 0점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33%(33명)나 되었다. 또한 연주가 가능하더라도 악보와 거의 맞지 않게 연주한 학생까지 포함(평가 점수 0.66~1.33점, 16명)한다면 전체의 49%(49명)달하는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단소곡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연주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미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학습했던 악곡을 제대로 연주 하지 못하는 점 또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소 교육이 그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5> 곡 연주 능력의 평가 점수 (4점 만점 : 전체 평균 1.53점)

점수대	명	백분율(%)
0 (연주 포기 및 불가능)	33	33%
0.66~1.33 (악보와 거의 맞지 않음)	16	16%
1.66~2.33 (부분적으로 맞게 연주)	21	21%
2.66~3.33 (악보에 맞게 정확한 박자로 연주)	23	23%
3.66~4 (정확한 박자로 연주하며 표현력 있게 연주함)	7	7%
합계	100	100%



##### (5) 총점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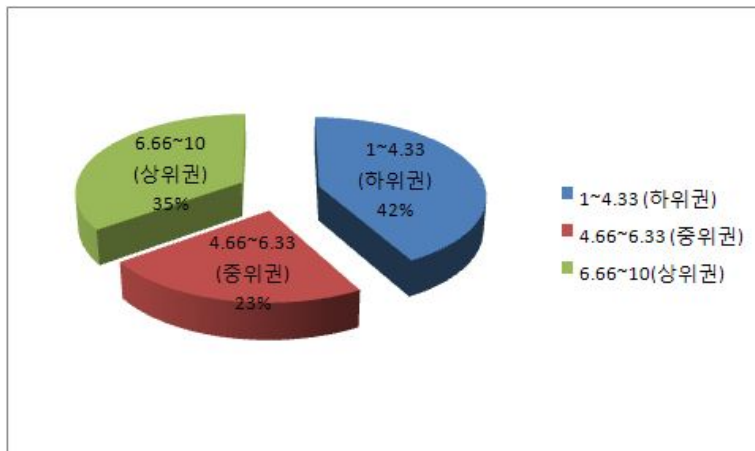
자세 및 운지법, 소리, 곡 연주능력의 합산 점수인 총점(10점)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총점의 전체 평균은 4.91점으로, 연주 포기 또는 연주 불가능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점 결과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위권(6.66~10점)은 자세 및 운지법의 기본점수인 1점에 소리가 잘 나는 편이며, 악보에 맞게 정확히 연주하는 학생으로 분류하였고 전체의 35%였다. 중위권(4.66~6.33)은 기본 점수인 1점에 소리에서 최소 2점, 곡 연주 능력 최소 2점을 받은 학생으로 분류하였고 전체의 23%였다. 하위권은 기본 점수인 1점을 포함하여 4.33점까지의 학생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의 42%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하위권의 학생이 전체의 42%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단소 교육이 학생들에게서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V-6> 총점의 점수 (전체 평균 4.90점)

점수대	분류기준	명	백분율
1~4.33 (하위권)	기본 점수 1점 소리점수 3점 이상 곡 연주 능력 3점 이상	42	42%
4.66~6.33 (중위권)	기본 점수 1점 소리점수 2점 이상 곡 연주 능력 2점 이상	23	23%
6.66~10 (상위권)	기본 점수 1점 소리점수 3점 이상 곡 연주 능력 3점 이상	35	35%
<b>합계</b>		<b>100</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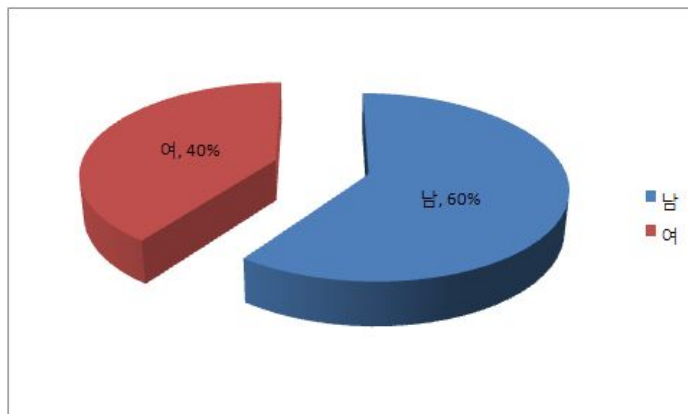
## 2) 설문지의 결과 및 분석

### (1)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0명, 여학생이 40명으로 전체 100명 이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0명 더 많았다.

<표 V-7> 학생의 성별

구분	남	여	합계
성별	60	40	100
백분율	60%	40%	100%



### (2) 문항 1번, 한자로 표기된 세로 정간보를 읽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울명이 한자로 표기된 세로 정간보를 읽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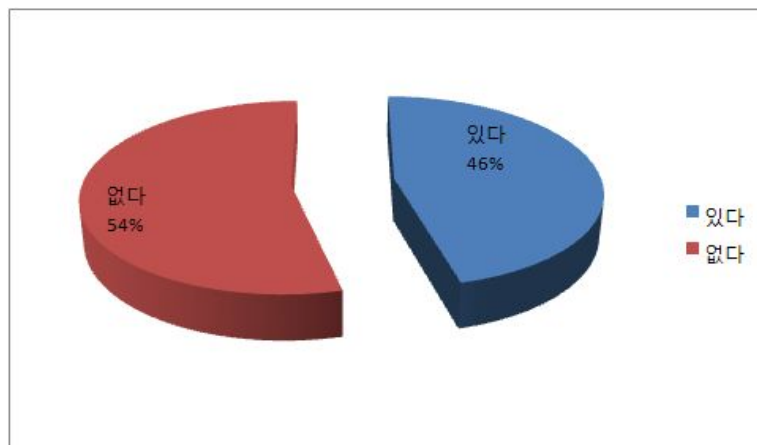
(46%)이 한자로 표기된 세로 정간보를 읽을 수 있다고 답하였고 54명(54%)이 읽을 수 없다고 답하였다.

교과서에는 한자로 된 세로 정간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응답에 관한 결과는 ‘읽을 수 있다’는 대답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더 높게 46%의 학생이 ‘읽을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문항5-1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문항에서 학교 수업 외에 따로 단소를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이 40%였다. 따라서 ‘읽을 수 있다’고 답한 46%의 학생 중 따로 배워본 적이 있는 40%의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6%의 학생들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에 한자로 된 세로 정간보를 읽어 본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V-8> 한자로 된 세로 정간보를 읽을 수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46	54	100
백분율	46%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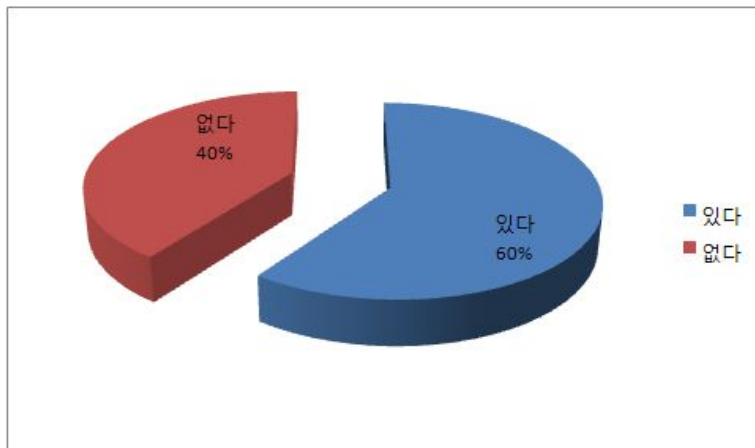


(3) 문항 2번,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60명이 ‘있다’고 답하였고 40명이 ‘없다’ 고 답하였으며 따라서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역시 문항5-1에서 학교 음악 수업 시간 외에 단소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들 40명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음악 수업시간 중 단소 학습 시간에 교과서 제재곡 외의 곡을 연주해 본적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9>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60	40	100
백분율	60%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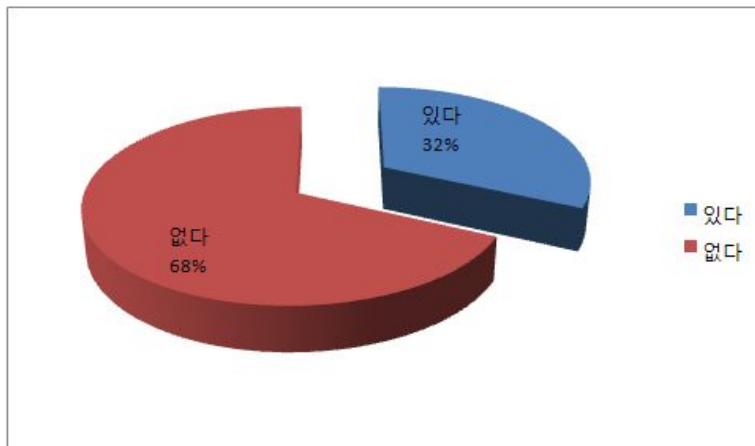
(4) 문항 3번,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총 32명(32%)의 학생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총 68명(68%)이 '없다'라고 대답하여,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다.

설문조사 이전에 실시된 실기 점수의 총점 분석 결과, 중위권과 상위권의 학생이 전체의 58%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 능력에 비해 다소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V-10>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32	68	100
백분율	32%	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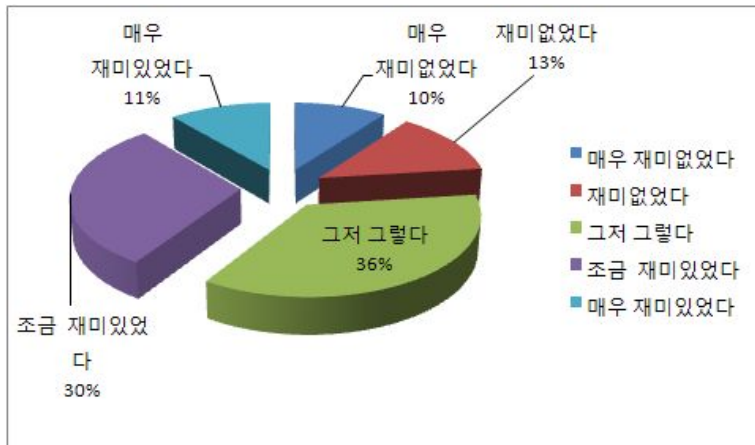
(5) 문항 4번,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

단소에 대한 흥미도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재미없었다’라고 답한 학생이 10명, ‘재미없었다’라고 답한 학생이 13명,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36명, ‘조금 재미있었다’라고 답한 학생이 30명, ‘매우 재미 있었다’라고 답한 학생이 11명으로,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조금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매우 재미있었다’, ‘매우 재미없었다’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단소를 배우면서 전체 학생 중 41%(41명)의 학생이 단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36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59%(59명)의 학생이 단소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문항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문항 8에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학생의 수(45%)가 단소에 대해 흥미를 느낀 학생 수와 4명 높게 나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소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몇몇의 학생들도 단소를 더 배워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습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더욱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단소 지도 시에 단소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표 V-11>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는가?

구분	매우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	그저 그렇다	조금 재미있었다	매우 재미있었다
응답자수	10	13	36	30	11
백분율	10%	13%	36%	3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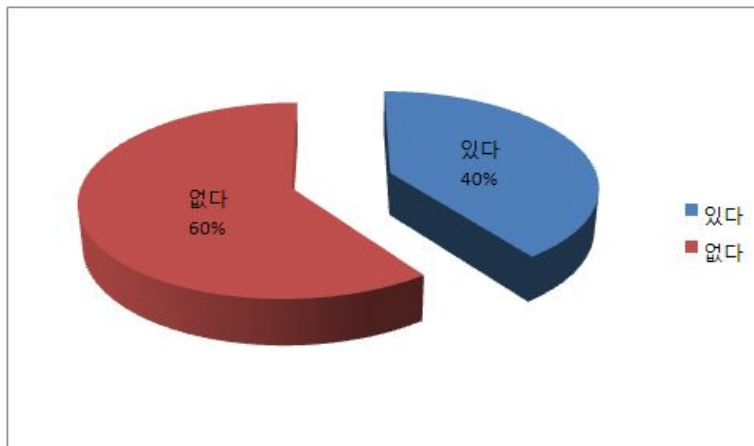


(6) 문항 5-1번, 단소를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따로 배워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따로 단소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40명,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60명'으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단소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표 V-12>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따로 단소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40	60	100
백분율	40%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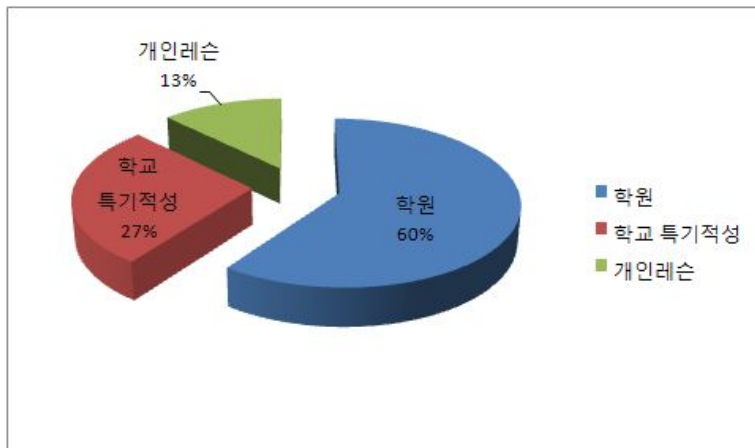
(7) 문항 5-2번, 단소를 따로 배워 본적이 있다면 어디서 배웠는가에 관한

질문

문항 5-1의 질문에서 ‘따로 배워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40명의 학생 중 ‘학원’이라고 답한 학생이 24명, ‘학교 특기적성’이라고 답한 학생이 11명, ‘개인레슨’이라고 답한 학생이 5명으로 학원에서 단소를 배운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 특기적성과 개인레슨 순이었다.

<표 V-13> 학교 수업시간 외에 단소를 배운 적이 있다면,  
어디서 배웠는가?

구분	학원	학교 특기적성	개인레슨	합계
응답자수	24	11	5	40
백분율	59%	28%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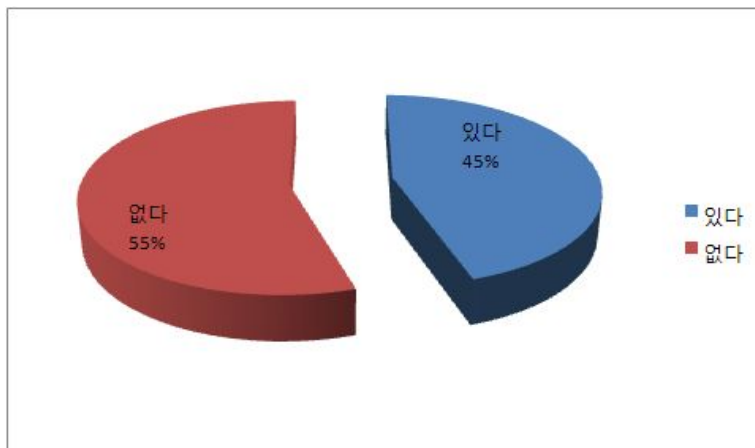
(8) 문항 6-1번, 앞으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단소에 대한 흥미도 및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으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45명(45%)이었으며,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55명(55%)이었다.

이 결과로 보아 단소 학습 욕구가 없는 학생이 학습 욕구가 있는 학생보다 근소한 차로 더 많았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단소 학습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V-14>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45	55	100
백분율	45%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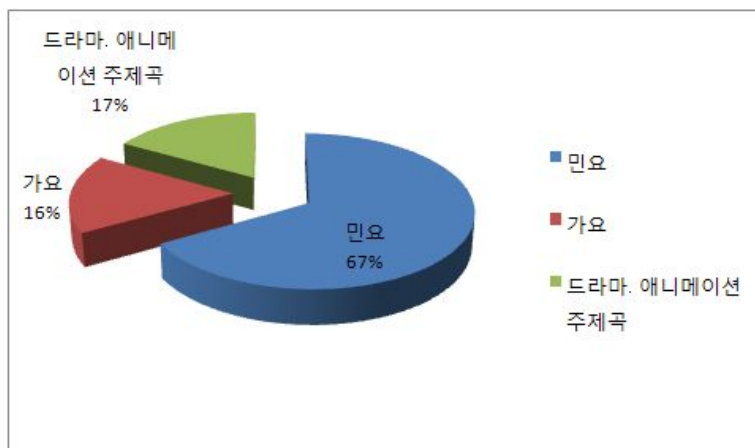
(9) 문항 6-2번, 단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배워보고 싶은 곡이나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

문6-1의 질문에서 단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거나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것은 선택답변이었으며 총 답변자 수는 12명이었다.

나타난 응답을 보면 배우고 싶거나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은 민요 (8명),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주제곡 (2명), 가요 (2명) 순이었다.

<표 V-15> 배우고 싶거나 연주하고 싶은 곡

구분	민요	가요	드라마·애니메이션 주제곡	합계
응답자수	8	2	2	12명
백분율	66%	17%	17%	100%



(10) 문항 6-2번, 단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

문항 6-1의 질문에서 단소를 배울 마음이 '없다'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은 수인 23명의 학생이 '소리가 잘 안나서'를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16명의 학생이 '연주 방법이 어려워', 8명의 학생이 '재미가 없어서'를, '기타'를 선택한 8명의 학생은 '현기증이 난다', '다른 악기가 더 좋다', '시간이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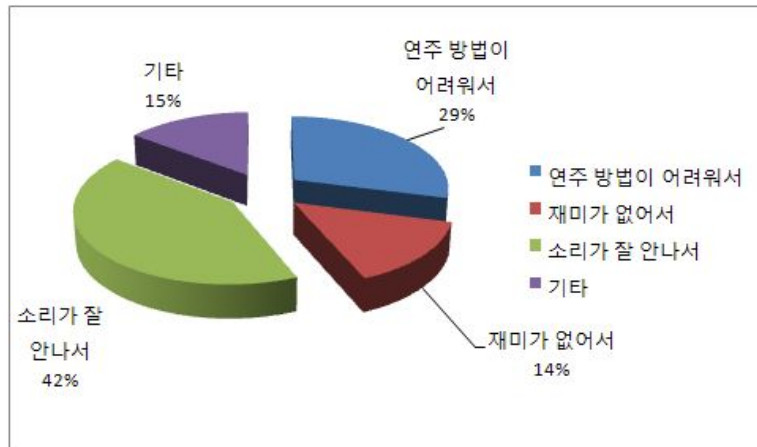
단소 교육에서 소리내기는 개인별 지도가 필요한 항목인데, 실제 교육현장은 시간이 한정 되어 있어 충분한 지도가 어렵고, 또한 교사에 비해 학생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별 단소 소리내기 지도가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단소의 소리내기를 혼자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문항의 결과를 볼 때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단소에 대한 흥미나 학습 욕구가 떨어진 학생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학교에서의 단소 교육 시 소리 내기가 개개인별로 잘 이루어져야만 앞으로의 단소 수업에서 학생들의 단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욕구,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V-16> 단소를 배울 마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분	연주 방법이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소리가 잘 안나서	기타	합계
응답자수	16	8	23	8	55
백분율	29%	15%	41%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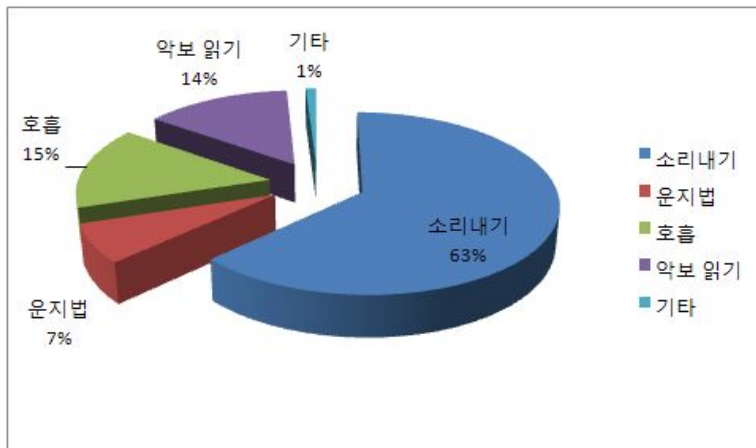
(11) 문항 7번,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질문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수인 63명(63%)의 학생이 ‘소리내기’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호흡’ 15명(15%), ‘악보(정간보) 읽기’ 14명(14%), ‘운지법(손가락 잡는법)’ 7명(7%), 기타 의견(잘 모름) 1명(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항 6-3의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소의 교육 시 가장 처음에 이루어지는 교육인 소리내기가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며, 또한 소리내기가 앞으로 단소 학습의 흥미도 및 학습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결과 역시 단소의 소리내기 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단소는 악기의 특성상 처음 소리를 낼 때 자신의 입 모양에 맞는 취법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악기이다. 따라서 소리내기 지도 시 학생 전체를 두고 교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지도해야 가장 큰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 여건 상 이러한 개별학습이 어렵다는 점이 단소 교육이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단소 소리내기의 지도를 위해 가장 큰 효율성을 가진 지도 방법이나 교수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V-17>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구분	소리내기	운지법	호흡	악보 읽기	기타	합계
응답자수	63	7	15	14	1	100
백분율	63%	7%	15%	14%	1%	100%



(12) 문항 8, 최저 1점, 최고 5점을 만점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 나의 단소 실력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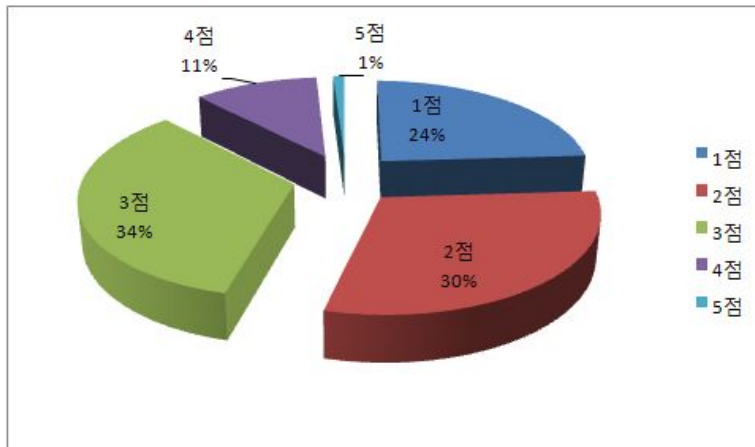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단소 실력을 평가한다면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점수 중에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인 34명의 학생이 ‘3점’을 주었고 근소한 차로 ‘2점’이라 응답한 학생이 30명, ‘1점’ 24명, ‘4점’ 11명, ‘5점’ 1명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것은 문항 3-1번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기 점수의 총점에서 중간인 5점 이상의 연주능력 평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54%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평가의 점수를 중간 점수대인 3점 보다 아래 점수대인 2점과 1점이라고 적은 학생이 전체의 54% (54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이 스스로의 단소 실기 실력에 대해 그다지 큰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히려 상당수가 자신의 실력에 비해 자신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행해지는 단소 교육이 총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며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소 수업 시간 외의 단소 교육 활동도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평소 단소를 연주하기 ‘어려운’, 혹은 ‘재미없고 힘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단소 교육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이와 같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V-18> 스스로 나의 탄소 실력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5점 만점)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합계
응답자수	24	30	34	11	1	100
백분율	24%	30%	34%	11%	1%	100%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소 실기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단소 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의 단소곡을 분석하여 실기 평가의 기준을 마련, 채점표를 제작하고 학생들의 단소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설문지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4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곡을 분석한 결과 5학년과 6학년 두 학년에 걸쳐 학습하게 되는 단소곡은 총 6곡이며 수준별·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3곡은 연습곡, 3곡은 동요나 민요를 악보로 옮긴 곡이었다. 또한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오선보를 없애고 대신 전통 방식을 살리면서도 학생들이 보기 쉬운 가로 정간보로 바꾸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전통 악기인 단소를 지도함에 있어 악보 또한 전통 방식대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실기 평가의 결과를 보면 자세 및 운지법 항목에서 전체의 57%의 학생이 나쁨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운지법에서 감점을 받았다. 따라서 단소 운지법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사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자세와 운지법으로 단소를 연주 할 수 있도록 지

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리 항목의 평가 결과, 소리가 잘 나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54%나 되었다. 이는 단소 실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내기 교육의 효과가 생각보다 매우 적으며, 소리내기 교육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개인별 지도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소 소리내기 지도 방안과 수업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곡 연주 능력 항목의 평가 결과, 30%의 학생만이 악보에 맞게 곡을 연주하였는데 실기 평가에 사용된 곡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학습한 곡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소 교육의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소리내기 지도와 더불어, 곡 연주에 필요한 악보 읽기 교육과 제시된 악곡의 충분한 학습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실기 평가의 총점을 보면 하위권의 학생이 42%로 상위권의 학생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단소 교육의 시간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바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과서 제재곡 외에 연주해 본 곡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60%였으며 이 또한 개인레슨이나 학교 단소 학습 시간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단소곡을 연주해 본 학생이 다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단소의 교육이 여러 가지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비해 교과서에는 제시된 단소곡의 수가 매우 적은 만큼 단소 지도 시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악곡을 제시하여도 좋을 것이다.

일곱째,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학생은 68%였으며 단소 실기 실력에 대해 1~5점까지의 점수 중 스스로 자신

의 점수를 적어보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54%가 1~2점을 주었는데 이를 실제 평가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단소 연주 능력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다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곡이 6곡이 넘고 그 수준이 결코 높지 않은 데도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많은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단소를 교육할 때 그 단원에서의 확실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단소교육이 현재보다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단소를 배우며 재미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낀 학생은 전체의 41%였다. 생각보다 단소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이 많았고 이 물음과 관련해 앞으로 단소를 더 배우고 싶은 학생도 45%나 되었는데, 학습의 흥미도에 따라 학습 참여도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머지 반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 욕구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이나 교수법이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 단소를 더 배우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 중 가장 많은 학생이 그 이유를 ‘소리가 잘 안나서’ 라고 답하였으며, 이것은 초기 단소 교육에서 소리내기 지도가 앞으로의 단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욕구, 참여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단소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학생의 63%가 소리내기라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소는 악기의 특성상 개인지도가 많이 필요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 여건상 개인지도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학생 개개인이 혼자서 소리 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때 학생들은 지도를 받지 못해 소리내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소에 대한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수업 방법 및 교수 방법의 개발과 함께 단소 소리내기 교육이 더욱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단소를 학교 음악 수업시간 외에 따로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40%나 되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단소 교육에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소 교육을 좀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결론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단소 학습 내용에 비해서 교육 효과가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단소가 악기의 특성상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상 개인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소리내기 지도시의 문제점, 학생들의 단소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교사 및 교육 전문가, 국악 전문가들은 단소 교육의 참여도와 흥미,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지역의 학생 100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을 평가하였으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소 실기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단소의 소리내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단소에 대한 학습 욕구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단소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면 연주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전통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소 교육 초기에 소리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단소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단소의 음색을 살리면서도 현재보다 소리내기 쉽게 취구를 개량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한다면, 단소 학습 시 학생들이 느꼈던 소리내기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단소에 대한 흥미도 상승과 학습 욕구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서한범 (1996). 국악 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 이성천 · 권덕원 · 백일형 · 황현정 (1994). 알기 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 출판  
풍남
- 손태룡 (2003). 한국의 전통 악기.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악원 (2002). 기악 · 창작 · 감상. 서울: 국립국악원
- 안수영 (2004). 단소연주곡집.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조성래 (2001). 알기쉬운 단소교본. 서울: 한소리국악원
- 김진성 (2000). 단소연습곡집.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 권덕원 외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부 (200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학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200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6학년.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송지형 (200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전통  
음악 내용 고찰. [국악과 교육]. 제 20집.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 이동남 (2001). 초등학교 단소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민속원
- 김기수 (1981). 단소율보(短簫律譜). 서울: 은하출판사
- 권태욱 (1997). 국악(國樂)의 이해(理解). 대구: 일일사

### 2. 정부 간행물

- 교육부 고시 제 2007-79호 (2007). 음악과 교육과정

### 3. 학위논문

- 김경태 (2007). 단소실기 수행평가 도구 개발.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채린 (2006). 초등학교 5, 6학년의 음악 교과서 단소 학습곡 분석 및 지도방안 : 협동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인희 (2005). 音樂受業에 활용할 포트폴리오 開發 : 고등학교 1학년 단소 실기평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현숙 (2004).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의 단소 교재곡 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자 (2002). 수행평가 적용을 통한 음악과 교육평가 개선 방안연구-창의력 신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향미 (2003).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4. 학술 논문

- 이동남 (1992). 현행 국민 학교 단소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Vol. 4 No.-  
韓國教育論叢

# ABSTRACT

## An Evaluation Study on Danso Performing Skills of th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Yoon young, Kim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current 7th Curriculum are th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40%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the contents for danso are being taught across the fifth and sixth grades.

But Considering the whole situations, few studies which have researched the effects of danso education were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has sought to evaluate danso performing skills of th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s of danso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to examine their interests in and attractions to danso via the questionnaire.

To solve the problems of this study, danso tunes in the music textbooks for the fifth and sixth graders were analyzed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grade sheets and questionnaire were made up.

Based on them, the performance evaluation by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with 100 students in the seventh grade of A. Middle School in Nowon-Ku, Seoul.

I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ree items such as posture and fingering, sound, and performing skills were observed, and then they were requir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with the eleven questions.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as for the posture and fingering item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of them had played danso with a poor posture and bad fingering, since 58 percent of all received BAD grade. Only 46 percent of the students were able to play danso sounds well, and the rest of them either could not make any sounds or made sounds mixed with wind. Only thirty percent of all the students were able to play the given turn accurately. According to the total marks they got, only 25 percent of students received the GOOD grade, which proves the danso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has obtained the lower outcomes than we thought.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has been revealed that 46 percent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able to read the traditional music notation called Jeonganbo. And those who have played other tunes besides the textbooks were 60 percent of the students. The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y could play danso tunes with confidence were only 32 percent showing that most students lacked self-confidence

for danso performance.

Those who became interested while learning danso were 41 percent. It was shown that there should be classes for danso to enhance the students interests and attention. Those who have learned danso in other places were 40 percent of all, most of whom told that they learned it in the private institutes.

And 45 percent of them replied that they wanted to learn danso more, when most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did not want to further their learning placed the difficulty of making sounds as the main reason.

Also to the question that asked the most difficult point about learning danso, 63 percent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sound making was difficult.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se two item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intensive and effective teaching on sound making should be done in danso education. To the question which asked the self-rating, 54 percent of the students wrote down low grades for themselves.

Accordingly, those results have shown that they were not really confident with their performance.

In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current danso education has been obtaining less effects than we thought considering the time and contents for it, the education of making sounds has to be done effectively and intensively, and further education plans to enhance the interests for danso should be developed.

# 부 록

## 단소 실기 평가에 사용된 평가곡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발췌)

### <부록1> 참새노래

#### 참새 노래

- 단소 연주 -

● '참새 노래' 를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

임		임	태	임	무	임			,
참		새	아	참	새	아			

임		무	무	임	충	태			,
너		어	디	가	—	니			

임		임	태	임	무	임			,
순		희	네	처	마	에			

임		무	무	임	충	태			
알		나	러	간	—	다			

<부록 2> 개구리소리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개구리 소리'를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

임		임	중	임	△	무		황무	임		△
거		못	거	못		숲		속	-	에	

태	태		태	- 황	무	황	황	황	황		△
퍼	런		못	자	리	물	-	속		에	

태	태	- 태	태			황		황	태	황	△
도	랑	물	옆			긴		득	따	라	

무	무		무			황		황	황	황무	임
포	플		러			신		작	로	따	- 라

중중	중		임	무	- 황	무					△
올	어	라		개	구	리	야			-	

<부록 3> 도라지 타령

# 도라지타령

- 단소 연주 -

🎵 '도라지타령' 을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

태	태	태	태	- -	황	무
도	라	지	도	-	라	지

중		임 -	중	태	- -	황	무
백	-	도	-	라	-	-	지

황 -	태	태	태	황 -	태	황 -	무	임	중 -
심 -	심	-	산	-	천	-	에	-	

임	무	- -	임	중		△
백	도	-	라	지	-	